

Международ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Перспективы развития диаспорологии в эпоху глобализации, транснационализма и цифровизации»

стр. 2

...꽃들은 사람들의 온정을 감축하고 그에 감사를 표하듯 아름다운 무지개 색채로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

стр. 10

Первый мужчина-медалист по синхронному плаванию

стр. 13

Республиканск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Издается с 1 марта 1923 г.

Выходит один раз в неделю.

www.koreans.kz

КОРЕ ИЛЬБО

# 고려일보

БУДЬТЕ БЛИЖЕ К ИСТОКАМ

뿌리를 잊지 말자



Сканируйте QR-код и переходите на сайт www.koreans.kz



Сканируйте QR-код и переходите в инстаграм «Коре ильбо»

42 (1840) 4 ноября 2022 года

## В Ассоциации, как в родной семье



стр. 4

## 카자흐스탄고려인협회를 방문



стр. 9

## Культурные традиции дружбе помогают



стр. 5

# ЗЕМЛЯ СЫРА – ЗЕМЛЯ ГЕРОЕВ

Руководство АКК и члены Фонда памяти Хон Бом До побывали в Кызылорде



Два насыщенных дня многочисленная делегация в составе руководства АКК и членов Фонда памяти генерала Хон Бом До провела на славной земле Сыра. Радужный прием организовали активисты Кызылорд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общественн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во главе с Еленой Ким.

Константин КИМ, Кызылорда

### Дань памяти славным предкам

Одна из главных целей визита в Казахстан многочисленной делегации членов Фонда памяти генерала Хон Бом До

– выражение благодарности казахстанским властям, а также корей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за организацию передачи праха Хон Бом До Южной Корее. Церемония репатриации прошл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участие в ней принимал Президен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Юн Сок Ёль.

Сразу с трапа самолета гости направились на старое кладбище, где прошла памятная церемония у мемориалов великих патриотов Кореи – генерала Хон Бом До и просветителя Ге Бон У. Гости возложили цветы, провели траурный митинг.

стр. 3

## 알마티에서 제 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지난 10월 26일 알마티 한국교육센터 회의실에서 제 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있었다. 이 행사는 자손재단(독립유공자 후손회)의 주최로, 대한민국보훈처와 알마티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후원하에 진행되었다. 금년도 기념식에는 한국 국회의원, 흥범도 기념사업회 우원식 이사장이 참가하여 자리를 빛내워주셨다.

먼저 귀빈소개가 있었고 박 따찌야나 자손회 회장의 간단한 발언이 끝난뒤에 우원식 이사장께 연권이 제공되었다.

-117년전에 우리가 나라는 잃었지만 광복의 희망은 잃지 않았습니다 - 우원식 이사장이 말했다 - 오늘 세계가 놀라는 대한민국이 있는 것은 독립유공자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것을 우리가 잊지 않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국무총리 이동휘, 러시아지역에서 재무총장의 활동을 한 최재현, 백마를 탄 김경천 장군, 연해주에서 독립운동을 한 황운정 투사, 한글학자 계봉우 및 기타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стр. 7

## 캠퍼스에 펼쳐진 학생들의 “솜씨” 전시회



타스데미로바 굴샤라(카자흐국립대 예비학부 부교수)  
세릭바예바 자리빠(카자흐국립대 한국학과 수석교원)

따뜻한 가을햇살이 포근하게 비추는 지난 10월 하순 주말에 알-파라비 카자흐국립대 캠퍼스에서는 의미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공화국의 날”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시간을 조금 앞당겨 참가자들의 관심 속에 개최된 것이다. 이 날 캠퍼스 도처에서는 “달마르” 대학생 웅변대회와 미술 전시회, 스타트업 코너, 교직원 체스대회, 카자흐 전통 놀이 ‘토그즈 쿠말락 대회’, 디자인 전공 학생들의 디자인 전시회, 카자흐 전통씨름, 도서 전시회, 수공예 전시회, 각 나라의 문화 코너 등과 같은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또한 전통 수예를 보급하고 각국의 문화를 소개할 목적으로 기타 여러 공연들도 행해졌다. 또한 대학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다양한 식품과 과일을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황금가을”이라는 식품전도 개최되었다.

이 날 기념 행사에 카자흐국립대 각 학부의 많은 교수진과 재학생들이 참가하였다. 많은 행사를 가운데 유독 주목을 많이 받은 행사가 있었다. 바로 예비학부(주로 외국학생들이 언어를 배우는 학부)의 “자스 세베르” 동아리가 ‘스타트업’ 프로그램으로 선보인, “수공예 - 신비스러운 예술”이라는 주제의 수공예 전시회였다. 이번에 개최된 수공예 전시회의 목적은 대학생 젊은이들에게 뜨개질 작품도 소개하고, 또 수공예 자체를 보급하는 데에도 있었다. 수공예 전시회는 현장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의 특별한 관심을 받았는데, 작품으로 전시된 품목마다 젊은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수공예품에 대한 관심을 더욱 불러 일으키는데 충분했다.

전시되는 수공예 작품들은 손으로 뜨개질한 스마일리 형태의 장난감과 어린 소녀용 드레스, 가방, 베개 커버, 슬리퍼 등이었다. 전시회를 찾은 관람객들은 “자스 세베르” 동아리에서 만든 작품들에 관심을 나타냈는데, 수공예를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과 더불어 수공예 제작 방식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던졌고, 적지 않은 작품들을 구매하기도 했다. 동아리 운영자들 또한 수공예 작품에 대해 설명하며 이러한 전시가 계속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밝혔다. 알-파라비 카자흐국립대학교 투이메바예프 총장 또한 관람객들의 가장 많은 인기를 얻은 “Food and Art First” 전시 코너를 방문했다. 그 또한 예비학부의 “자스 세베르” 동아리의 수공예 작품들에 큰 관심을 보였고, 해외에서 온 유학생들에게 성공을 기원하며 단체로 기념사진을 찍었다.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날’은 1990년 10월 25일 제정된 국경일이다. 30여 년 전에 당시 카자흐사회주의공화국 최고회의 결정으로 국가주권에 관한 선언이 공표가 되었는데, 이로써 독립국가로서의 카자흐스탄의 정치-법적 기초가 마련되었고, 이후 독립선언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공화국의 날’은 카자흐스탄 국민들에게 가장 의미있는 국경일 중의 하나로 기념되고 있는 것이다. 성스러운 국경일에 맞추어 진행된 다채로운 캠퍼스 행사는 지난 2년 동안 펜데믹에 갇혀있던 우리의 마음에 큰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명년에도 이런 행사가 또 개최되기를 기대하며, 카자흐스탄 모든 국민들에게 큰 기쁨과 미래에 대한 큰 기대감을 느껴보는 국경일 시간들이 되기를 바란다.

## 피겨 김민채, 데니스 텐 메모리얼 여자싱글 우승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김민채(16·서울 신정고)가 피겨 챌린저 시리즈 대회에서 대역 전극을 벌이며 우승했다.

김민채는 28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린 2022 국제빙상연맹(ISU) 피겨 챌린저 시리즈 데니스 텐 메모리얼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김민채가 ISU 공식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민채는 전날 여자 싱글 종목 쇼트프로그램에서 41.05점으로 출전 선수 12명 중 7위에 그쳤지만 프리스케이팅에서 대역전극을 벌였다.

김민채는 이날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63.46, 예술점수(PCS) 54.33로 117.79점으로 쇼트프로그램을 합해 최종 총점 158.84점을 획득하며 1위를 차지했다.

2위인 카자흐스탄 안나 레프코베츠(145.43점)와의 점수 차는 13.41점이다. 레프코베츠는 전날 쇼트프로그램에서 54.16점으로 1위에 오른 바 있다.

## 크즐오르다국립대에 한국이 지원하는 IT관련 학과 신설

고려인이 세운 원동사범대학을 전신으로 하는 크즐오르다 국립대학에 홍범도 장군의 이름을 딴 IT 관련 학과가 신설된다.

우원식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과 관계자들은 31일, 크즐오르다 국립대학을 방문하여 이 대학내에 컴퓨터 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 정보보안학과 등 IT 관련 3개 학과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한국정부의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우 이사장은 베비트쿨 하눔 총장과의 만남에서 “작년 홍범도장군 유해봉환 과정에서 고려인이 세운 원동사범대학을 전신으로 하는 이 대학에 홍범도 장군의 이름을 딴 센터를 만들어 보자는 논의를 한 지 1년만인 올해 이렇게 첫발을 내딛을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쁘다”면서 “양국 수교 30주년, 고려인 강제이주 85주년인 올해부터 향후 7년 동안 지원을 한 뒤 향후 추가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해나갈 한국의 대학으로는 서울과학기술대학이 선정되어 IT관련 신설학과 개설과 운영에 나서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 대학과 교환학생, 상호학점인정 등의 교류프로그램을 가동해 나갈 예정이다.

크즐오르다 국립대학은 1935년에 첫 졸업생으로 17명을 배출한 원동고려사범대학이 1937년 가을에 고려인들이 스탈린의 강제이주 명령으로 카자흐공화국 크즐오르다로 이동한 뒤, 1938년에 크즐오르다사범대학으로 이름이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곳에는 연해주에서 가져온 한글과 한문으로 적혀 있는 고서들이 있고, 한국어과가 잘 운영되고 있다. 현재에는 한국국립국제교육원에서 파견된 2명의 한국어교수가 한국어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 카자흐스탄 국립의료기관, 양산부산대병원과 의료협력 MOU체결

카자흐스탄 국립의료기관들이 양산부산대병원과 향후 보건의료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각 기관의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 있는 국립연구암센터(National Research Oncology Center)와 알마티에 있는 국립의과대학 부속병원(Interna Clinic)에서 각각 진행됐다.

주요 협약내용으로 의료진 교육과 연수, 현지 환자에 대한 자문 및 의뢰 그리고 공동연구 및 학술활동 지원 등 양 병원 간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양산부산대병원의 의학과 기초과학을 접목한 융합과학기술을 토대로 카자흐스탄의 보건의료시스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기관 간 꾸준한 의료 교류를 통해 양국의 의학 발전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양산부산대병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에서 주관하는 ‘2022년 ICT기반 의료시스템 해외 진출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아스타나와 알마티 지역 거점협력병원과 ‘A.I.기반 캡슐내시경 원격관독시스템’을 ㈜캡토스와 공동수행 중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 ‘가짜뉴스’는 범죄입니다

양의 가면을 뒤집어써도 늑대는 늑대일 뿐입니다.  
뉴스의 형식을 빌려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가짜뉴스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